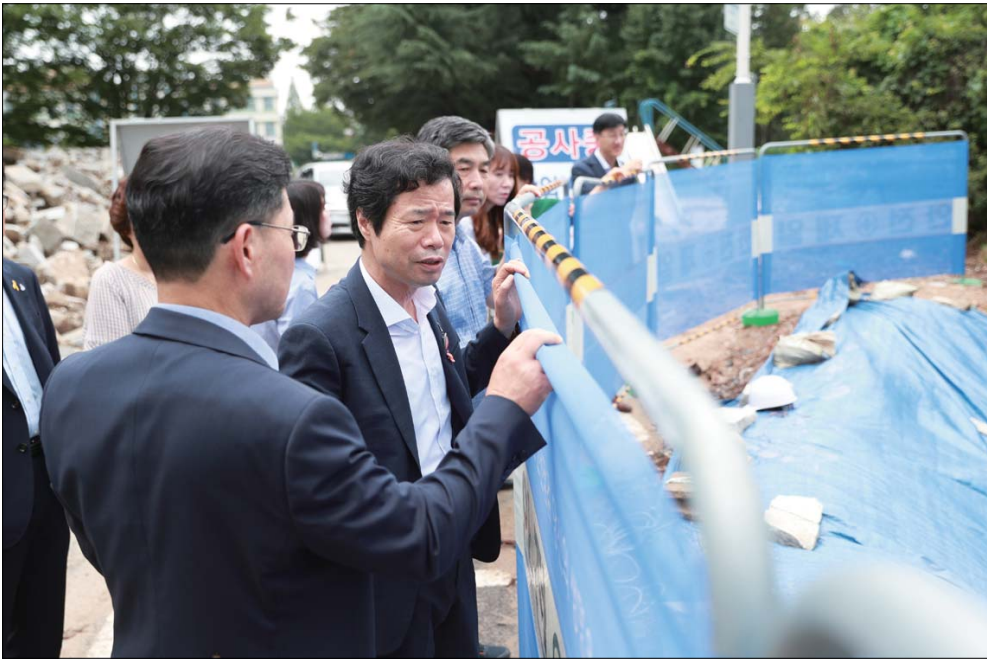


# “신속한 복구... 생명·안전 최우선”

김승환 교육감, 집중호우 피해 유치원 방문... 대처상황·시설물 안전 확인



김 교육감은 11일 오후 익산 이리유치원을 찾아 시설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면서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이리유치원은 지난달 30일 내린 폭우로 울벽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곳이다. 피해액은 1억여 원, 복구비용은 2억 3000여 만원이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유치원을 방문, 대처상황 및 시설물 안전을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오후 익산 이리유치원을 찾아 시설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면서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이리유치원은 지난달 30일 내린 폭우로 울벽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곳이다. 피해액은 1억여 원, 복구비용은 2억 3000여 만원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아준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중요한 시설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한명의 생명이라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항상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7월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1차 집계 17교, 2차 집계 25교 등 총 42교에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누수·침수·토사유출 등의 피해로, 도교육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한 복구 및 추가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청소년기 자녀 교육의 고충 공감

전주교육장·전주학부모기자단 소통의 시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관내 학부모기자단 임원진과 11일 10시 30분에 교육장실에서 전주교육발전과 교육협력 방안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 관내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주학부모기자단'(회장 신현이) 90여 명은 평소 특색 있는 학교의 교육 계획과 다양한 교육 현안 등 학교 현장을 취재하면서 자녀 교육 정보와 교육 정책을 적극 공유해 왔으며, 소외 계층 봉사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한편, 학부모기자단 임원진은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청소년기 자녀들과의 소통 방법과 진로 진학 등 자녀 교육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면서 전주 학부모기자단이 학교·학부모·교육청 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하영민 교육장은 “앞으로도 관내 학부모 및 지역 교육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동, 풍류, 율곡음, 창신 등 꽃심 정신이 전주 교육 정책 전반에 단계적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극복”

전북교육청, 학생·교사 참여 환경교육 정책개발 추진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교사와 함께 환경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11일 오후 4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김태균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이은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학생·교사 환경정책실천단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교육 정책 협의회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해 학생·교사 환경정책실천단을 모집하였으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5개팀 50명을 선정했다.

환경정책실천단은 환경시민단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북도의회 멘토와 함께 학생·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멘토가 환경조례 및 정책개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역의 환경교육활성화 조례연구 ▲학교현장 요구 분석 ▲환경교육의 핵심가치 도출 ▲지구살리기 교육 실천 방법 등에 대한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지구 살리기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내달 14일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하이텍고, 빈틈없는 준비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정훈량)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빈틈없는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도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기능인들이 50개 종목에 걸쳐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된다.

전북하이텍고에서는 CNC 밀링을 포함해 방동기술, 그래픽디자인,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IT네트워크시스템 등 6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이다. 학교는 이를 위해 이미 대화용 장비 구입과 임대, 실내·외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긴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직원으로 구성된 IT팀과 공사 업체 관계자들이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어려움을 하나 하나 헤쳐나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올바른 식생활, 아이들 면역력 높인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실시간 라이브 토크콘서트

전주대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 공개방송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이겨내자는 의미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바른식습관연구소 김아람 대표와 정소아청소년과의원 정우석 원장이 강사로 나섰다. 1부는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을 주제로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육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정보와 예방방법 그리고 부모의 태도와 육아방법에 대해 이야기들 나눴다.

마지막 3부는 평소 애용했던 아이들의 식습관 문제나 육아방법 등을 실시간 댓글로 질문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콘서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학부모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육아에 도움 되는 강의를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위해 어린이건강식생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280개소 어린이·영양관리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 공개방송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 군산대 LINC+사업단·시민사회협의회체 ‘맞손’

군산대학교가 군산시민사회복지협의회 및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맞손을 잡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를 다져나가기로 하면서, 최근 지역사회 발전 및 협력을 위한 공동협력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김영철 단장, LINC+사업단 산하 사회혁신협력센터 김영숙 센터장, 군산시민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겸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 한희화 회장이 참여했다.

를 더욱 강화해 지역민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군산시민사회복지협의회 및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산대학교가 진행한 ‘마르지 않는 샘물 기부 릴레이’ 챌린지에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릴레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군산대학교가 올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부 캠페인이다. /군산=환경보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기야 합니다

